

#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학의 역할

-비판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제공 자료로서의 문학\*

김혜영\*\*

## Abstract

**Kim Hyeyoung.** 2012. 6. 30. **The Role of Literature for the Communi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Literature as the Information Sources for being able to communicate Critically.** *Bilingual Research* 49, 111-135. This paper aims to seek for how literature plays a role as the information sources to communicate critically in multicultural societies to readers.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Korea are composed of mainstream Korean members and the memb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t is necessary for every member to inspect themselves critically, to see other members with careful concern and to speak to one another with open minds. This is called critical communication. To communicate critically, the members should know how other members live, work, and think, etc. That is, they must get the information of those people. Literature can be a very good material for this purpose. That is because Literature reflects the real world with artistic forms, so makes the readers get the inform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more naturally. The short stories of 『Saeggiya Supermarket』 from Sibaek Lee, 『Night there, Songs here』 from Aeran Kim and the poems 『Chebul(a delay in payment)』, 『Daemulim(inheritance)』, 『Hangook Ai(A Korean child)』 and 『Samchoneun beorigo ogo, chokaneun derigo ogo(The uncle leaving her there, the nephew taking her home)』 from Jongo Ha were selected and analysed to show which information the readers can get from the literature.

---

\* 이 논문은 2011년 4월 2일 개최된 이중언어학회 제 26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Key words】**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ies), 비판적 의사소통(critical communication), 문학(literature), 정보 제공 자료(information source), 단편 소설(short story), 시(poem)

## 1. 서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라틴어의 ‘communis’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생각이나 지식, 정보, 의견, 의도, 느낌, 신념, 감정 등을 주고받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것(소통)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차배근, 1987, 윤석민, 2007: 3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서 보면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청자와 화자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고 남의 의견을 잘 이해하여 좀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들의 의사소통은 사회구조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주류 집단과 다문화 집단<sup>1)</sup>의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개인적 위치가 결정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집단은 주류 집단의 편견에 의해 차별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좌절하기도 한다. 주류 집단 또한 외국인의 유입을 안정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갈등에 노출되기 쉬운 다문화 사회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 주체들의 성찰을 요구하는 비판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사회의 상황에

---

1) 본고에서 다문화 집단은 ‘인종, 민족’ 개념에 한정하여 주류 집단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탈북자’와 그의 가족이 이에 해당된다.

대해 알아야 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다문화 사회의 혜택도 인지하고 문제점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를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는 문학 작품 읽기는 독자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도 얻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학은 먼저 문학 자체로 읽힐 뿐이다. 우리가 문학을 읽는 경우에 그것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읽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한 성찰의 기회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태도로 문학 읽기를 하면서 각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비판적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로서 정보 습득의 필연성이 기술될 것이다. 정보 습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학 독서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였다. 문학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한계도 있으나<sup>2)</sup> 이 경우 문학은 갈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문학이 어떤 측면에서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지를 고찰하고 선정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각 텍스트가 독자에게 주는 다문화 사회의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대상 문학 작품으로는 이시백의 소설 「새끼야 슈퍼」(2008),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2009), 하종오의 시 「체불」(2007), 「대물림」(2007), 「한국 아이」(2007),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2004)가 선정되었다. 작품 선정 기준도 이 장에서 거론될 것이다.

---

2)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언급하였다.

## 2. 다문화 사회의 비판적 의사소통에서 정보 습득의 중요성

다문화 사회의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습득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성찰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는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가’하는 것과 둘째로는 ‘다문화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전제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한국 사회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답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주로 관주도적 다문화 정책이었다. 정부 기관들이 다문화 가정에 주목하고 다문화 가정의 성인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언론이 또한 이에 협력적으로 가세하며 지방자치 기관과 학교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 집단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일깨우고 이들을 격려하는 순기능도 가지지만 정책이 다문화 집단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들을 하위 집단으로 고정화 시킬 수 있고 주류 집단은 다문화 집단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긴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류와 다문화 집단의 갈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절실한 문제라는 데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맥펙(McPeck)과 리차드 폴(Richard Paul)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맥펙(McPeck, 박영환·김공하 역, 1989:12-13)은 비판적 사고가 무조건 회의를 품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고려중인 문제영역 내에서 반성적 회의를 적절히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반성적 회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때를 아는 것은 그 해당 분야에 관해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항상 ‘X에 관한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다른 분야의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비판적 사고가 그 사고 방법 훈련에만 치우쳐 그 사고 방법을 적용할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리차드 폴(1993: vii)은 “사고는 지식의 핵심이다. 지식은 사고에 의해 발견되고 분석되고 조직되고 변형되고 평가되고 가장 중요하게 사고에 의해 습득된다. 과학을 배우려면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하며 수학을 학습하려면 수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맥팩이 어느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영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보면서 비판적 사고 자체를 원자론적이고 정보 중심적 지식 모델의 중심에 둔 것(리차드 폴, 1993: 363-373)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맥팩과 리차드 폴의 논의는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논의는 비판적 사고가 하나의 과목이나 지식에 특유한 접근 방법으로 훈련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 훈련의 방법을 가지고 이를 각 영역이나 지식에 적용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차이이지 비판적 사고가 그 사고의 내용, 곧 지식을 전제하며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김혜정(2001) 역시 국어교육에서 사고력 증진 방법론의 부재에 대해 고민하면서 비판적 혹은 고차원적 사고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므로 텍스트 내용을 다루는 방법이 텍스트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고의 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혜정(2008)에서는 김영정(2005a)의 정리를 빌어<sup>3)</sup> 분석을 통한 텍스트 내용의

---

3) 김영정(2005a)은 고차적 사고 능력을 7범주로 구분하고 그 중에 분석·추론·종합·대안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넣었다. 분석적 사고는 이해력과 분석력을 모두 포괄하는 기능으로 의미 파악 능력, 번역 능력, 해석 능력, 내삽 능력(이상 이해력)과 자료를 그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 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이상 분석력)을 포함한다. 추론적 사고(논증적 사고)는 어떤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해가 선행되어야지 논증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비판적 사고의 방법을 읽기에 적용하고 있다.

맥팩, 리차드 폴, 김혜정의 논의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장은 비판적 사고가 추상적 측면에 머무르면 안 되며 실제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임하는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은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알고 그에 대해 반성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현안들이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즉, 앞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비판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거치는 인지 과정을 ‘정보의 습득 → 분석 → 추론 → 종합 → 대안 찾기 → 실천’으로 구조화해 볼 수 있는 데<sup>4)</sup> 이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정보의 습득’이 된다. 이 단계가 없으면 뒤의 비판적 사고( 분석 → 추론 → 종합 → 대안 찾기)와 실천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얻는 통로는 다양하다.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이것만을 방법으로 내세운다면 그 경험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인데 간접적인 방법은 크게 비문학적 사실적 자료와 문학적인 허구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문학을 통한 정보 습득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

종합적 사고는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의 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 다양한 매개변항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안적 사고는 주어진 사태에 대해 발상전환적인 접근을 하거나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하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창안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그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면 이 중에서 논증적 사고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읽기에 대응시킨다.

- 4) 인지 과정 중에서 ‘분석 → 추론 → 종합 → 대안 찾기’는 김영정(2005b)의 ‘비판적 사고’에서 빌려 온 것이며 ‘정보의 습득’과 ‘실천’의 단계는 본고에서 새롭게 설정된 것이다.

### 3. 문학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

#### 3.1. 정보 제공 자료로서의 문학의 역할

신체호는 소설을 ‘국민의 혼’, ‘국민의 나침반’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설의 감화력을 대중 계몽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권영민, 2009: 21) 문학은 계몽의 의도를 앞세우기보다는 작품 속에 포함된 교훈적 요소가 예술적 기법을 통해 은근하게 내비치도록 형상화되었을 때 독자에게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시행되는 많은 다문화 정책이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sup>5)</sup> 본고에서는 ‘삶의 진실된 모습을 그려 내면서 위대한 상상성을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훈을 주게 되는(권영민, 2009: 22)’ 문학 독서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얻는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문학 자료는 다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성, 곧 공감성이 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인환(2005)에서는 의사소통과 그 맥락 고찰에 있어서 문학텍스트 자체의 매개항인 전형<sup>6)</sup>을 통해 작가의 기대와 독자의 기대가 개입됨으로써 문학작품은 텍스트의 층위와 사회역사적 층위를 함께 포함하게 된다고 본다(오형엽, 2007에서 재인용). 이는 문학 작품에는 여러 층위들이 상호연관되어 기대의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작가의 기대지평이 독자의 기대지평에 여과되어 이해되는

5) 인터넷 상의 반(反)다문화주의 카페와 반(反)다문화주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집단이 많다. 고려대 아시아인권센터가 2009년 1200명을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했을 때도 이주노동자와 공존(共存)할 수는 있지만 공유(共有)는 안 된다는 의식을 답변자들은 보여주었다(황형준, 2009).

6) 김인환(2005: 18)에서는 현실과 묘사를 매개함으로써 현실 묘사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단이 전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학은 이처럼 우리와 세계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문학 읽기는 우리의 심층에 와 닿는 정보의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대행, 1998).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를 다룬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다음 단계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

구인환 외(2007: 49-51)에서는 문학의 속성인 상상력이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성과 정서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람들은 유발된 정서를 직접 기술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해 과거의 경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각에서 오는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가 정서 반응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성이나 감동이 사실판단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인식적 상상력과 문학이 ‘신화’<sup>7)</sup>에 비판적으로 맞서게 한다는 조응적 상상력이 작용한다. 문학에서의 상상력은 정서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지만 인식적, 비판적 측면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앞의 주장은 문학에는 상상력이 개입하여 허구의 세계를 기술하므로 실제 세계를 왜곡시켜 인식하게 한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독자들은 작가의 기대지평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과하면서 문학을 이해하고 사실판단을 바탕으로 한 비판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문제적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7) 구인환(2007: 49-51)에서는 현재의 사회 기준이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용을 ‘신화’라고 본다.

### 3.2. 문학에 드러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보

문학이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려면 작품 선정 또한 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정보 제공 자료로서의 문학은 그 제재나 내용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 전제가 된다. 다문화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가 적고 이루어진 연구도 구체적, 실증적 부분에서 부족하다. 졸고(2010, 2012)에서는 문학 텍스트의 작가, 인물, 배경이 다문화성을 결정한다고 보아 이를 1차 기준으로 잡았으며 1차에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 기준을 다시 적용하였다. 2차 기준은 Radencich(1988)와 메리루이스 놀링(Mary-Louise Newling)<sup>8)</sup>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Radencich(1988)는 a) 사회적 기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b) 이중문화를 가진 등장인물이 자기이해의 방법을 배우는 것, c)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온 등장인물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d) 문화간 비교가 있는 것, e) 다른 문화를 싫어하는 인물이 일을 하면서 다문화 이해를 배우는 것 등을 다문화 문헌 선정 기준으로 들었고 메리루이스 놀링(Mary-Louise Newling)은 a) 일반적 정확성<sup>9)</sup>, b) 고정관념, c) 환경 묘사의 정확성(setting), d) 언어<sup>10)</sup>, e) 모욕적인 말의 사용, f) 삽화의 적절성, g) 작가의 관점, h) 호소력 있는 이야기, i) 논쟁적 이슈 제공(tough issue)<sup>11)</sup> 등을 다문화 책 선정의 가이드라인으로 들었다(Shiohita, 2007). 이들을 참조하여 선정된 다문화 텍스트의 2차

8) 미국 엘라메다 카운티(Alameda County)의 다언어·다문화 아동 문학 센터의 교육과정 전문가

9) 책은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10) 등장인물들에 대해 표준어와 방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특정 문화권이 작품 속에 등장할 때 그들의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것인지, 혹은 실제 언어를 모방하여 만든 언어인지,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11) 논쟁적 이슈에 다루기 위해서는 작가가 문제의 복잡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온 등장인물들의 상호작용이 갈등을 낳거나 혹은 서로 이해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 다문화 자료로서의 대표성<sup>12)</sup>이 있는 작품, 현재 이용 가능한 작품’ 등이 그것이다. 1차 기준은 문학 작품 자체와 관련되는 기준으로 하나의 다문화 텍스트가 1차의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킨다면 다문화 텍스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차의 세 가지 기준은 각각이 모두 텍스트의 다문화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2차 기준은 텍스트의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언급하는 부분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1, 2차 선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시백의 단편소설 『새끼야 슈퍼, 김애란의 단편소설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하종오의 시 『체불』, 『대물림』, 『한국 아이』,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를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시백의 『새끼야 슈퍼』는 그의 2007년 단편집 『누가 말을 죽였을까』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동산슈퍼 주인 평식은 물건을 사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말끝마다 ‘새끼야’라는 욕을 덧붙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산슈퍼를 ‘새끼야 슈퍼’라고 부른다. 이들 외국인들은 평식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마흔이 넘는 평식에게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주선한다. 결혼 후에도 평식은 이제까지 해 온 카드노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가게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폭행하기도 한다. 결국 카드 훈수를 두다 폭행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 수루는 평식에게 ‘그만해. 나쁜 새끼야’하고 대들고 평식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 지켜본 아내 안젤라는 평식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떠나면서 면사무소에서 배운 서툰 한글로 평식에게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편지를 남긴다.

12) 대표성은 여러 텍스트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문화 자료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김애란의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홀대를 받던 한국 남자 용대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 준 조선족 여자 명화의 관계가 중심이다. 용대는 명화를 만나 그녀와 결혼을 하나 명화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고 용대가 혼자 남아 그녀가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명화가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녀를 추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중오의 시 『체불』은 한국 노동자들에게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는 공장 사장을, 『대물림』은 불법체류자의 위치를 대물림하게 되는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그들의 아들을, 『한국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부모와는 달리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부의 아이를,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만난 여자를 버리고 온 삼촌과 베트남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조카를 대비시켜 현재의 세대를 그리고 있다.

이들 작품들에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주류 집단 사람과 결혼 이주여성의 관계, 주류 집단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의 관계,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갈등과 이해가 드러나 있어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작품 속 정보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주류와 다문화 집단 모두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들 작품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sup>13)</sup>.

13) 이는 졸고(2010: 59-71)의 다문화 문식성 교육 내용 분류에서 정보 제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졸고(2010)에서는 다문화 문식성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상황 파악
  - ① 차별과 절망 ② 선별적 차별 ③ 역사의 교섭 ④ 내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 2) 주류 집단과 다문화 집단의 상호작용

첫째는 한국 주류 집단이 다문화 집단을 차별하고 다문화 집단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절망감을 가진다는 것이다(차별과 절망).

두 번째는 한국 주류 집단 사람들이 다문화 집단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함으로써 다문화 집단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자신이 스스로를 내적으로 규정한 대로 살지 못하고 좌절과 소외에 빠진다는 것이다(내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세 번째는 주류 집단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다른 나라와 상호적 영향 관계를 가졌던 과거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개인의 삶에 투영된 역사 간 교섭).

### 3.2.1. 차별과 절망

『새끼야 슈퍼』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 주류 집단이 인종이 달라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 집단 사람들에게 대해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얼굴이 시커먼 방글라데시 남자가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라면을 찾을 때만 해도, 가게를 하다 보니 참 별난 것의 돈도 다 받아 본다며 웃고 말았다(이시백, 2008: 188).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는 종종 차별적 인식을 낳는다. 평식은 자신과

- ① 또 다른 우리 ② 개성적 개인으로서의 다문화인 ③ 주류 사회의 문화적 우월감과 그에 대한 완화적 처방 ④ 정체성 찾기
  - 3) 한국인과 한국 문화 성찰
    - ① 순혈주의(단일민족주의) ② 획일주의(반개개인주의) ③ 이종규범주의
  - 4) 해결책과 대안 제시
    - ① 인간미와 사랑 ② 이해와 공감 ③ 새로운 이웃의 탄생
- 본고에서는 그 중 첫째인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의 상황 파악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제시와 관련된다고 보아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안젤라를 하위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평식의 말과 그가 행하는 폭력에서 드러난다.

“뭘 쥐, 새끼야.”(이시백, 2008: 189)

“씨발 새끼, 오천원 여.”(이시백, 2008: 189)

“말두 퍽퍽히 못혀, 병신 새끼야.”(이시백, 2008: 189)

“즈깐 년이 워딜 가.”(이시백, 2008: 198)

코를 정통으로 걷어채인 수루가 몸을 말고 엎어진 뒤에도 평식은 분을 못 참고 발 뒤꿈치로 수루의 등을 찍어댔다.(이시백, 2008: 201)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므로 차별을 이상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같은 한국인인 평식의 태도는 독자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준다. 이는 문학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정보를 습득한 독자가 비판적 성찰을 시작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만해. 나쁜 새끼야.”(이시백, 2008: 201)

평식은 자기가 항상 욕을 했던 수루에게서 그 욕을 되돌려 받게 되는데 독자는 주류 집단이 경제적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를 평식을 통해 보고 또한 그런 행동이 낳게 되는 결과도 보게 된다. 안젤라가 집을 떠나면서 평식에게 취한 태도는 주류 집단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도식적으로 판단하여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안젤라는 결혼 시계, 금도야지, 이부 다이아 반지도 그대로 두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놓고 떠난다.

“당신이 수루를 때리는 걸 보고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보고 새끼야 해

서 나빠요. 당신 새끼야 하면 화난 거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화나요. 그리고 카드 하지 말아요. 내가 신고했어요. 착하게 살아요. 멀리 가니까 찾지 말아요(이시백, 2008: 206).”

고인환(『누가 말을 죽였을까』해설, 이시백, 2008: 275-277)은 이 작품을 ‘못 사는 나라 것이라고 함부로 깔 본 시선이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진한 여운으로 전해주는 작품’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주류와 다문화 집단 사이에 이런 부정적 부메랑만 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아내 안젤라의 편지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다. 사회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분법적, 도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 이에서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주류 집단의 긍정적 태도를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 사회를 다룬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3.3의 말미에 잠깐 언급될 것이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오창은(2009)은 『새끼야 슈퍼』가 실려 있는 이시백의 소설 『누가 말을 죽였을까』를 평하면서 그의 소설이 ‘있을 법한 현실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재구성하듯 다성적’이라고 평한다. 그는 ‘양면적이고, 불가해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보면서 이를 이시백이 적절하게 풀어내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양면적이고 불가해하며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충돌하(오창은, 2009)’는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는 이런 문제의 해결에 선뜻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 현재의 다문화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데 이 작품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본 작품은 그러므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던 독자에게는 우리 사회의 일면을 알게 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인지했으나 작품 속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가지는 관련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현실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에는 조선족 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족 여성 명화는 중국어, 북한의 조선어, 한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여성인데 한국에 와서 명화는 자신이 발음하는 한국어가 ‘조상들이 말이 아닌, 단순히 타지 사람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소리와 억양이 환기시키는 어떤 냄새에 대해서도, 죽어도 완벽해질 수 없는 딴 나라 말의 질감에 대해서도 알아간다(250).’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처음에는 한국을 모국이라 생각하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깨닫는 것은 자신들이 타지인이며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딴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이었다. 명화와 결혼한 용대는 ‘이 여자, 언제나 내겐 좀 과하다(246)’고 느꼈지만 명화는 한국에서 한낱 조선족 불법체류자일 뿐이었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조선족들의 불법적 위치를 이용한다. ‘고용주는 망설이는 척하면서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반겼다(251).’ 불법체류하는 조선족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생인 려화 또한 일하는 도중 눈에 강염기성 세제가 튀어 한쪽 눈이 멀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떠난다(251). 명화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한국에서 명화의 인생은 품팔이 인생이었고 얻은 것은 병뿐이었다. 명화는 결국 위암으로 죽었는데 불법이주민이라는 처지는 그녀의 죽음마저 더욱 재촉한다. 명화는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죽을 상태였으나 천천히 죽지 못하고 좀 이르게 갔다(261-262).’ 명화의 병은 용대와 명화를 ‘전세에서 월세로 나중에는 관처럼 작은 방으로 옮겨 다니게 한다(271).’ 이들이 처한 빈곤계층의 삶을 현재의 한국에서는 주로 명화와 같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음을 작품 속에서 느끼게 된다.

한밤중 명화가 비명을 지를 때면, 옆방에서 외국어로 된 욕설이 들려왔다.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베트남 욕일 때도 있었고, 방글라데시 혹은 러시아 욕일 때도 있었다(271).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서 중요한 논쟁 거리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에 의거해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을 두고 있어 실제 입국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 수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 상황은 법조항에 명시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에서 불법체류자를 이용하는 공장주들의 존재와 같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나타난다. 임금 체불, 저임금, 노동 착취, 인권 유린 등의 다문화 사회의 많은 문제가 그로 인해 야기된다.

사출공장 사장은 봉급을 줄 때/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달이 꼬박꼬박 다 주고/동남아인 노동자들에게는 다달이 절반씩 미루면서/한국인 노동자들은 처자식에 부모 있고/동남아인 노동자들은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씨부렁거렸다//체류기간 끝난 달부터 체불되기 시작하여서/인도네시아는 쪽방 달세 내지 못하고/벵골리는 집에 송금하지 못하고/스리랑칸은 쌀밥 먹어보지 못했지만//중략//사출공장 사장은 얼토당토않게 궁시렁거렸다/동남아인 노동자들이 돈 모아서 돌아가면/자기네 나라에서는 부자가 된다고/한국인 노동자들은 모을 돈이 없다고/동남아로 기계를 옮겨가는 게 더 남는 장사라고(체불, 20-21)

부모가 합법체류하는 동안에/한국에서 태어난 자식이/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되면/덩달아 불법체류자가 되어/똑같이 강제출국 당해야 했다

(대물림, 30)

하중오의 시 『체불』과 『대물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되면 저절로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이들이 이 상태로 오랜 기간 머무르면 그들의 자녀도 많은 고통을 겪는다. 아이들은 학업, 자존감 등 많은 부분에서 장애를 가지면서 성장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한다.

### 3.2.2. 내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에서 명화는 ‘소통에 관한 한 순진할 정도의 믿음이 있던 여자. 일도 참 잘했지만 공부를 했다면 더 좋았을 젊은 아내(246)였지만 용대의 가족들은 명화가 괜찮은 여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보험금을 빼먹고 떠난 다방 여자와 명화가 비슷한 부류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괜찮은 여자가 왜 용대 같은 남자랑 살겠냐는 식으로(261).

주변 사람들도 용대와 같이 다니는 명화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수군거렸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지만 참한 처자가 열 살 연상의 별 볼일 없는 남자와 만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252).

끝까지 용대와 주변 사람들은 명화의 본모습을 알지 못했고 사회적 맥락에 의한 심리적 의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비를 꾸러 다니던 용대에게 혀를 차며 ‘그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 없고 병드니까 너한테 붙은 거 아니야(271)’라고 충고하는 이들의 말은 용대의 명화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용대는 명화에게 욕을 한다.

“너 진짜 몰랐냐. 다 알고 시집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니가 나 같은 놈을 왜 만났겠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 뒤지려면 혼자 뒤지지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그러냐(271).”

실제 용대에 대한 명화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작품에서 주류 집단은 이주민의 힘겨운 삶이 다른 이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낳았다는 것에 동감하지 못한다. 명화는 자신을 본모습과 다르게 규정하는 주류 집단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작품에서 명화라는 인물이 독자에게 남기는 여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말하지 않으나 그 속에 내포된 갈등은 한 개인이 스스로의 내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의 괴리, 그로 인한 차별에 의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명화의 상황은 명화가 용대에게 중국어로 가르치는 다음의 말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워 더 쩌웨이 짜이날?

-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246)”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규정도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심각한 괴리를 나타낸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외국인인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부모의 모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십 년간 한국에서 직장 다닌 아버지는/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어하고/아이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중략/아버지의 모국이 아이에게 다른 나라다/아이는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한다/중략/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는/더 재밌는 놀이가 있다 해도/다른 나라에 가서 놀고 싶진 않다/아이는 다닥다닥 붙은 집과 높은 담 사이/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개와 종종거리는 비둘기가/쫓고 쫓기며 지내지만/자신이 다가가기만 하면 일시에 흩어지는/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한국 아이, 32-33)

외국인 근로자의 아이들은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 아이』에서 한국 사람들도 ‘개’와 ‘비둘기’처럼 서로 다투며 살지만 아이가 다가가면 일시에 흩어져 버리는 ‘비둘기’는 곧 아이를 포용하지 않는 ‘한국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아이의 마음은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 3.2.3. 개인의 삶에 투영된 역사 간 교섭<sup>14)</sup>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에서 명화의 고향인 지린성 엔지는 한국어와 북한의 조선어 그리고 조선족의 조선어가 뒤섞인 도시였는데 그녀는 말 [言]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다(250). 명화의 가족사는 한국의 역사와 맞물린다. 조선인들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 땅을 떠나 중국에 정착해 독립운동, 해방, 국공내전, 한국전쟁, 문화혁명, 개혁·개방 등을 온몸으로 겪고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북한,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 연해·내륙의 대도시로 다시 흩어

14)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역사의 강자이든 약자이든간에 각 나라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의 역사적 상호작용을 ‘역사 간 교섭’이라 지칭하였다.

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대한 ‘디아스포라(이주이산)’를 경험한다 (안수찬, 한겨레, 2011,11,04). 명화를 통해 그려지는 현재의 조선족은 서글픈 이산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한국은 월남전에 참전했고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은 현지 여인들과 사랑을 하고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그녀들을 버려두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베트남 여인들을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내몬 경우가 많았다.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인 사이에서 탄생한 라이 타이한은 현재까지 개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남성들 중에는 한국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베트남 여인을 배우자로 맞는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발적, 비자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그들이 되고 어제의 그들이 오늘의 우리가 되는 역사의 업힘은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관계를 현명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과거에 잘못 엮힌 관계를 현재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종오의 시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는 현재도 한 가정 내에서 역사적 교섭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가집에 살던 삼촌은 양옥집 짓고 싶어/전쟁터에 돈 벌러 베트남 갔다 가는/꼬드겨 같이 잠잔 여자 버리고 돌아왔다//중략//장기 하사관 봉급 챙겨와 마련한 전답에서/가족들 일평생 거두어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조카가 자라 함께 일구게 되었을 때썸/삼촌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만신창이 되었다//시골 노총각들 시집을 여자 없어 이국 여자들 물색하자/삼촌

은 기왕 장가들려면 콩까이에게 들라고/살림 아무지게 산다고 조카보고  
속살거렸다//양옥집에 살던 조카는 아내 얻고 싶어/농사지어 모은 돈 가  
지고 베트남 가서/난생처음 선보고 여자 데리고 돌아왔다(50-51)

삼촌은 베트남에 양옥집 지을 돈을 벌러 갔고 돌아오면서 콩까이(베트남 아가씨를 의미함)에게 장가드는 것이 창피해서 사랑을 나눈 여자를 버리고 온다. 조카는 지금 양옥집에 살지만 아내를 얻지 못해 삼촌의 권고를 따라 베트남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온다. 시를 통해 구성되는 이야기는 삼촌도 조카도 여자도 역사 속 작은 조각으로 그들의 삶의 궤적들은 예상하지 않았으나 우연히 하나로 엮여 있음을 독자에게 보여 준다.

앞에서 문학 작품이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서의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몇 개의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류 집단의 편견, 다문화 집단의 개인들이 차별당하고 이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 다문화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정체성 인식 내용이 사회의 인식과 달라 발생하는 문제, 한국이 다른 나라와 교섭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등이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정보들이었다. 이들 정보를 얻은 독자는 자신의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근거로 이를 여과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구성원들과 비판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학도 작가의 의도 그대로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의 다문화 시대 문학 읽기에 있어서도 독자가 성숙된 의식의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나 이는 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고는 다문화 시대의 문학 읽기에서 독자가 찾았으면 하는 다문화 시대의 문학 읽기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읽혀진 문학 작품의 내용이 건강한 비판을 통해 좀 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4. 결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비판적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야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이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세계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문학 작품 몇 편을 분석하였다. 단편소설 「새끼야 슈퍼」,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시 「체벌」, 「대물림」, 「한국아이」,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를 자료로 선정하여 이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들 텍스트에서 독자에게 다문화 사회의 정보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집단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절망, 다문화 집단의 내적 규정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개인의 삶에 투영된 역사 간 교섭’ 등이 그것이다. 독자에게 제시된 다문화 사회의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의 실천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이며 문학 작품은 이러한 비판적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자료로서 가치를 가짐을 전술한 바 있다.

본고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도 가진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다룬 문학 작품 속에 본고에서 제시한 정보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종오의 시 ‘단속’이나 ‘원탁’에는 인정 있는 한국 공장주,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을 앞 둔 한국 여인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따뜻한 면모를 지닌 많은 이들이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아직 갈등 국면에 있어 다문화 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비판적 의사소통을 거쳐 개선과 실천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살필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문학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신빙성 문제 또한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덧붙여 제시한 정보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과 관련되어 자칫 잘못하면 다문화 사회를 강자와 약자의 이중적 구조로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정보를 얻었으며 전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 등 남은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여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문화 교육은 난관을 넘어서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시대의 요청이므로 본고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 김애란(2009),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문학과 사회> 2009 봄, 20쪽-144쪽  
 이시백(2008), 『새끼야 슈퍼』, 『누가 말을 죽였을까』, 서울; 삶이 보이는 창, 187-206쪽  
 하종오(2004),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 『반대쪽 천국』, 서울; 문학동네, 50쪽-51쪽  
 하종오(2007), 『체벌』, 『국경 없는 공장』, 서울; 삶이 보이는 창, 20쪽  
 하종오(2007), 『대물림』, 『국경 없는 공장』, 서울; 삶이 보이는 창, 30쪽  
 하종오(2007), 『한국아이』, 『국경 없는 공장』, 서울; 삶이 보이는 창, 32쪽  
 하종오(2007), 『단속』, 『국경 없는 공장』, 서울; 삶이 보이는 창, 34쪽-35쪽  
 하종오(2007), 『원탁』, 『국경 없는 공장』, 서울; 삶이 보이는 창, 52쪽  
 고인환(2008), 『농촌·농민의 속살 보듬기』, 이시백(2008), 『누가 말을 죽였을까』, 서울; 삶이 보이는 창, 267쪽-288쪽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서울; 삼지연  
 권영민(2009),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김대행(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사상사  
 김대행(1998), 思考力を 위한 文學教育의 設計, <국어교육연구> 5-1호, 국어교육학회, 5쪽-28쪽  
 김영정(2005a), 비판적 사고와 학습의 3단계, <비판적 사고와 토목공학> 제53권

- 제4호, 대한토목학회지, 78쪽-83쪽
- 김영정(2005b),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 <비판적 사고와 토목공학> 제53권 제6호, 대한토목학회지, 106쪽-111쪽
- 김인환(2005), 『글쓰기의 방법』, 서울; 작가
- 김혜영(2010), 『다문화 문식성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혜영(2012),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분류-소설과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0, 한국 국어교육 학회, 261쪽-284쪽
- 김혜정(2001),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국어교육> 105, 한국어교육학회, 59쪽-88쪽
- 김혜정(2008),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향, <독서연구> 20, 한국 독서학회, 47쪽-81쪽
- 안수찬(2011), 조선족 대이주 100년 1부, 뿌리-마지막 학교/우리 길림성 조선족은 이제 없어지나요?, <한겨레 신문>, 2011.11.04
- 오창은(2009), 풍자와 야유, 농촌의 내면을 헤집다, <녹색평론> 104, 녹색평론사, 243쪽-251쪽
- 오형엽(2007), 현대문학비평과 논증의 수사학, 어문논집 56, <한민족어문학회>, 325쪽-362쪽
- 윤석민(2007),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현준(2009), 다문화사회 다양성 국가에 도움, 단일민족 혈통 유지 자랑스러워, <동아일보> 인터넷 판 2009년 1월 28일
- McPeck, J. E., 박영환·김공하 역(1989), 『비판적 사고와 교육』, 서울; 배영사
- Paul, R. W.(1993), *Critical Thinking: What Every Person Needs to Survive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CA: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 Radencich, M. C.(1998), Multicultural Education for Literacy in the Year 2000: Traversing Comfort Zones and Transforming Knowledge and Action, *Peobody Journal of Education*, 73(3&4), 178-201
- Shiohita, J.(2007), *Beyond Good Intentions: Selecting Multicultural Literature*, Children's Advocate Newsmagazine, Action Alliance for Children, [http://www.4children.org/issues/1997/September\\_October/beyond\\_good\\_intentions\\_selecting\\_multicultural\\_literature/](http://www.4children.org/issues/1997/September_October/beyond_good_intentions_selecting_multicultural_literature/)

김혜영(Kim, Hyeyoung)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151-742

전화번호: 010-2842-9198

전자우편: lux9198@hanmail.net

투고일자: 2012. 4. 19

심사(수정)일자: 2012. 6. 22

게재결정: 2012. 6. 23